

학내 성폭력의 대응방안 토론회

-학칙 제정과 전담기구 마련을 중심으로

일시; 1997년 12월 4일 오후 6시

장소; 27-302 강의실

진행순서

▶ 주요내용 발제

발제 1. 성폭력 관련 법률에 있어 여성권의 문제

발제 2. 대학내 성폭력의 심각성

발제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자유토론

주변성의 힘으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를!

제2대 여/성/위/원/회

HY:290-0104.

▶성폭력 관련 법률에 있어 여성권의 문제

들어가며

최근 여성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을 경험한 여학우는 전체 설문응답자의 14.5%라고 한다. 설문조사가 완전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공간에서 100명 중 14명의 여학우가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 끔찍한 폭력을 당한 그 많은 여학우들은 한 번도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일까? 목구멍을 넘어오는 분노 속에서 너무도 부질없는 질문을 던져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그녀들은 견고한 가부장제의 그물로 둘러싸인 일상에서 그녀의 상처를 숨기기에 급급해 하며 혼자 절망했을 것이다.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해야 하는 법률과 사회 제도에서도 여성의 육체에 대한 권리는 유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하도록 법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 법률을 여성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법 자체의 문제점 1

- 기소독점주의와 검찰기소권 남용의 문제

먼저 우리나라 법률 상의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이 모든 기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찰 내부의 재판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더욱 가혹하기 마련인데 검찰 자체가 가부장적 의식 속에서 사건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어렵게 고소,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율은 대단히 낮다.

법 자체의 문제점 2

- 성폭력 범위의 연속선상의 문제

현행 법률 안에서 성폭력 범죄는 성기삽입을 중심으로 특정 유형별로 분리하여 명시되어 있다. 성폭력은 위계에서 우위인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성을 매개로 행하는 폭력 일반을 모두 아우르며, 위계 또한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요인(심리적, 권력적 등)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정의에 의하자면 성기삽입만을 문제삼는 현행 법률 규정은 다른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묵과하게 한다. 그리고 성기삽입을 중요시 여기는 배경의 근저에 여성을 다만 남성의 소유물로만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깔려있다고 보여지므로 분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유형을 구분하여 명시한 것도 성폭력 범죄의 연속선상의 특징을 무시한 처사여서 다양한 성폭력범죄가 규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 자체의 문제점 3

- 범죄구성요건의 문제

현재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폭행이나 협박을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했으며 저항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극도의 폭력 상황안에서는 저항하기보다 지독한 무력감에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사실과 성폭력이 꼭 물리적인 상해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 밖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를 수사, 재판하는 기관의 실무자는 대다수가 남성이며, 그 중 대다수의 남성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범죄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언어적, 심리적으로 또 한번의 성폭력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그리고 판사, 검찰 등의 수사과 재판의 실무자들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그대로 범죄사실에 적용하므로 성폭력 범죄는 더욱 어려워진다. 피해여성들은 사회의 이목 때문에 얻는 상처에 더하여 범죄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폭력을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 관련법은 법률자체로도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운용되는 과정 또한 가부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안에서 정작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권리는 사실상 지켜지기 힘들다. 한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주는 성폭력이 이렇게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률은 한 사회의 구조와 철학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정치기술, 규범이다. 이는 결과로서의 법제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법이 환류적으로 다시 사회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능성으로써의 법률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여성의 법획득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획득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로서 우리가 서있는 지평-대학공간에서의 성폭력 학칙 제정을 주장한다.

▶ 대학내 성폭력의 심각성

; 아래의 사례는 여성연대회의에서 약 10여개 대학의 성폭력 사례를 모아 발간한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교수-학생

1. 국민대 교수 강간사건

1) 사건개요

국민대에서 교수에 의한 제자의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조사중이며 조만간에 기소 여부 판정이 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작년 96년 12월 피해자 P학우는 논문정리를 하고 있었다. 담당교수인 송교수가 그 학우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 함께 평창동에서 저녁을 먹었다. P학우가 집에 가려하자 송교수는 자기가 태려다 준다는 집이 왕십리인데 의정부길로해서 상계동길을 이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송교수는 파주로 차를 몰았으며 길을 잘못들었다고 말하며 서울로 나가는 길목에서 여러번 차를 돌리다가 어느 여관앞에서 차를 세웠다. P학우에게 할 얘기도 있으니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며 P학우는 거부를 했으나 교수는 '나를 존경하면 같이가자'며 여관으로 유인했다. 여관에서 술을 시켜놓고 학업이야기를 하며 교수는 대학원에 합격한 P학우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송교수는 애인이 있느냐, 성관계는 해보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며 음란 비디오를 틀고 거부하는 P학우를 강간했다.

2) 강간사건고소와 의혹의 간통고소

다음날 P학우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을 했다. 고소할 결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건 이후 송교수는 '너 요즘 왜그러냐, 나때문은 아닐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뒤도 봐줄 것이고 10년 뒤면 아마 나에게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여자고 내가 남한테 무슨일이 있을지는 어떻게 알겠냐'는 등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자 얼굴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기 때문에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97년 2월 14일 고소를 하고 17일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 그리고 고소한 후 일주일만에 피해자는 간통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에 이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송교수의 10년 제자이며 같은 과 교직원인 이씨가 같은 과 대학원생이자 남편인 최씨와 P학우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한 것이다. 간통사건은 피해자를 평소 문란한 여성으로 여기게끔 하였고, 강간사건을 희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근거없는 이 간통사건은 '송교수가 고소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한달 후 취소된 점'등 많은 의혹을 남긴채 사라졌다.

3) 사건 경과와 대책위 구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여학생회에서는 2월 21일부터 공론화를 하였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송교수 수업의 수강신청거부를 위한 선전활동을 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 사건해결을 위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측의 대자보 강제철거 등의 방해작업으로 인하여 학우들은 그 사건이 우리학교의 사건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한 가운데 간통사건으로 인한 소문들은 속수무책으로 번져나갔다. 2월 26일 총여와 몇몇 학생대표들이 송교수와 면담을 했다. 송교수는 자신은 결백하며 현재 법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수 없다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학기 수업은 폐강을 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휴직계만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에 3월 11일 학생처장이 준비한 '성폭행 대자보 관련 당사자 모임'을 비공개하에 가졌다. 이 자리는 송교수, 피해자, 피해자와 남편을 간통고소한 이씨와 학생대표들, 학생처장, 부총장 외 4명의 교수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송교수는 피해자와 여관에 간 것까지 인정을 했으며, 피해자를 여성으로서가 아닌 다른 남학생과 똑같이 여겼기에 여관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씨는 고소를 하였으며 가정사이기 때문에 말할수 없다고 했다. 총여에서는 송교수가 간통건에 대해 고소가 있기 전에 언급한 사실을 입수했기 때문에

송교수에게 이를 질문했으나 자신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간통고소는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이후 학교측은 더 이상의 진상조사를 펴지 않았으며 공개도 하지 않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자며 '명확한 진상규명, 송교수의 퇴임, 수업폐강으로 인한 피해과의 문제해결 등'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 왜곡시키고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총여, 대학원총하, 졸준위, 동연, 총학과 각 단대학생회로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송교수 퇴진을 위하여 4월 10일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선전작업(대책위 신문, 대자보, 백서등)과 침묵시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여론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송교수의 퇴진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피해과의 정상화, 학교측의 공개사과, 유언비어 유포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천여명의 학우가 서명해 이에 동참했다. 5월 8일 이러한 요구들로 학내에서 집회를 했으며 송교수의 방을 폐쇄했다. 송교수 방의 폐쇄가 가지는 의미는 많겠지만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쉼표를 찍는 하나의 시작이며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든지간에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함을 알리는 계기였다.

송교수는 4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지금은 법적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후 대책위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교칙제정(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 해당되는)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학내의 문제로만이 아닌 사회속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외부와 연대, 법적 투쟁까지 전개할 생각이다.

2. 97년 4월 서울대 약대 구교수 성폭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94년 4월 28일 실험을 위한 채집을 하기 위하여 교수님과 마산 근교의 시골로 가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으며, 머리를 쥐어박고 허벅지, 옆구리 등을 꼬집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마산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구교수는 동생 댁에서 잘 것이라는 출발할 때의 이야기와는 달리 호텔에서 묵자고 하였다. 그리고 교수님은 방을 한 개만 얻었고, 정선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끌고 가서는 성추행을 시도하여 정선배는 결사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리고 구교수는 정선배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가버렸다.

정선배는 이런 사건을 겪고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실험실에는 여학생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이후에 어색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95년 10월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교수가 내라고 할 때까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었고, 95년 4월 다시 다시 말하였다가 몹시 혼이 났다.

96년 2학기가 되면서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정씨 졸업해"라고 이야기하고 정선배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너는 더 비참해져야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절망해야 하고 3년전에 학위를 줄 수 있었는데 미워서 안줬다. 미워서 조교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줬고 장학금도 안줬다. 직장이 생겨도 다 뺏아놓을 거다, 너는 내게 정이 있느냐? 너가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안준다. 내가 너를 이번 학기에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라고 하며 논문제출 심사를 거부하자, 정선배는 상담함속에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대구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정선배가 실험노트를 가져간 것을 이유로 집에 전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일단 사제간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 정선배는 97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교수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정선배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이상 자신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신과 피해를 받은 다른 지도학생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겪을 지도 모르는 후배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총장님에게 대학사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3월 11일 제출

하였다.

2) 진정서 제출 이후의 경과

약대 학부 비대위는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였고, 비상 총회를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입장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 구교수가 맡고 있는 실험을 '구교수의 공개사과와 퇴진, 고소취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구교수는 공개사과와 사퇴, 본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구교수를 퇴진시키고, 정선배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 가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받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약대 대학원에서는 각 실험실 박사과정 대표자가 모아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약대 교수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구교수 공개사과와 퇴진'을 내용으로 하는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했다.

약대 교수님들은 교수의 징계에 대한 권한은 본부에 있고, 약대에서는 학사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학사위원회에서 정선배와 다른 2인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였고, 행정적으로 논문제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위심사는 다른 대학원생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약학과장과 제약학과장 2인을 실무자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작업을 하였다.

3) 구교수의 고소결과

구교수는 정선배의 아버님과 정선배를 비롯하여 진정서에 언급되었던 다른 3인의 지도학생들(총 5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정선배의 경우는 여기에 공영서류무효죄의 혐의를 더해 형사 고소하였다. 현재 서울지검의 유재만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였으며 약대 교수님들의 진상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사결과,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임으로 판명되었고, 구교수는 무고죄로 구속되었다.

4)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4월 15일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정선배, 약대 학부 비대위,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관악여성모임연대가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5) 공대위의 입장

공대위는 본부에 구교수 퇴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라는 문제가 겹쳐 있다. 우리 나라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에서는, 소위 '일반인의 평균적 시각'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벼운' 행위와 언어로 인하여 어떠한 공포와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에 대한 규범, 기준 자체가 차이가 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교수 제량에 따라 제자의 생활과 미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불평등한 관계,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더욱 성폭력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

공대위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구교수는 정선배와 피해를 입은 다른 지도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공식사과해야 한다!

2. 본부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구교수를 퇴진시켜야 한다!

3. 정선배와 다른 지도학생들(피해자들)의 경우 기간에 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사회 내에서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4.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부는 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학생-학생

1. 모꼬지

1. 1996년 - 동아리 **는 봄 정기 모꼬지를 갔습니다. 보통 모꼬지를 가면 그러하듯이, 주머니 사정상 방은 하나 빌렸으며, 밤이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93학번 한 여학우가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져 방에 먼저 들어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보니 바지 지퍼가 내려와있어서, 수상하여 옆을 쳐다보니 같은 동아리 96학번 여학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채 드러누어 있었습니다. 96학번 후배를 다그쳤더니 같은 동아리 91학번 선배가 자고 있는 93학번 여선배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후배는 자신도 당할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자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아리 내에서 공론화시켜 동아리 총회를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총회 결과 동아리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2. MT장소에서 옆에 있던 남자 선배가 자는 여자 후배를 만짐. 이상한 느낌에 켜 여자 후배는 평소 존경하던 선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뿌리치고 다른 방으로 가버림. 다음 날 후배의 항의에 남자 선배가 '너는 남자 친구 경험이 없구나'라고 비웃음. 이후 여자 후배는 정신적 고통으로 고생하다 선배를 만나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됨,

3. MT에서 취한 여자 후배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여자 후배가 책임을 추궁하자 서로가 원했다며 책임 회피함.

4. 모 동아리에 어떤 남학생이 모꼬지를 가서 여학생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차례로 성기와 가슴을 만지다가 한 여학생이 알아채고 소리를 질러 동아리에서 말고 있던 직책을 그만두고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했었다. 그 남학생이 복학을 해서 과 모꼬지를 가서는 새내기들의 가슴을 만지는 일을 또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러 왔다.

2. 학생회실

1. 97년 사회대 **과에서는 총회를 거쳐서 한 친구에게 제재를 가한 일이 있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 95학번 남학우(이하@@)가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때문이었다. 작년부터 술만 먹으면 그 친구는 옆에 있는 여자 동기나 후배의 허벅지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나랑 연애하자고 했다. 그러다 한 96학번 여자 후배(이하**)를 좋아하게 되었다. @@와 **를 비롯하여 몇 명이 송년회를 한다고 한 자취방에서 송년회를 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 하숙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2차를 한 후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졌다고 한다. **가 자려고 하고 있는데, @@가 다시 찾아와서 밖에 비가 오고 자신의 하숙방 열쇠도 없으니 재워달라고 했다. 그렇게 까지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었던 **는 들어와서 자라고 했다. 들어온 후 @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 저항을 하다가 물리력으로 막아낼 수 없었던 **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만취했던 @는 발기가 되지 않아서 강간 미수로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마무리 되면서 지내다가, 신입생 3차 환영회 2차인가 3차 뒤풀이에서 @는 다시금 **에게 접근을 하였다. 잠시 나와보라면서, **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티격태격하는 중에 **는 상처를 입었다. @@가 너무나 취해서 하숙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강제로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 **는 자신의 하숙집으로 도망쳐왔고, 조금 있다가 @는 **의 하숙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하숙집 주인과 싸우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결국

이 피해자 친구는 참을 수가 없게 되어 과 통신망에 공론화 시켰고, 문제는 확대되었다. @@에 의한 피해자는 또 있었는데, 역시 취하게 된 같은 학번 %% 여학우를 강간하려다가 완강히 저항해 강간미수로 그쳤다.

2. 96년 사회대 \$\$과의 신입생 환영회 중, 95학번 선배가 적어둔 후배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선배는 그 여자 후배가 전화를 걸러가자 쫓아와 전화박스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오는 후배를 다짜고짜 붙잡고 키스를 했다. 이 후배는 어쩔 줄 몰라서 그 선배를 계속 피해다녔다.

사회대 ##과에서 있었던 일이다. 과 사진 소모임에 들었던 !!양은 사진발표 하루 전 작업을 하느라고 스튜디오에서 밤을 샜다. 이 작업을 같이 한 사람은 삼수생이었던 같은 동기 오빠였다. 피곤해서 잠을 청해야겠는데, 잘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침낭 하나밖에 없어서 번갈아 가면서 자야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쌓인 피로가 풀리지 않아 결국 같은 침낭 안에서 자게 되었다. 조금 그러했지만, 작업을 워낙 오래 하다보니 나 잘테니 너는 깨어있어라고 하는게 뭐해서 결국 같은 침낭안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몸을 더듬으면서 사귀자는 식으로 말을 했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그런 식의 행위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딱히들지 않는 거부의 몸짓과 언어였을 것이다. 그 친구는 그 후 쟁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 선배를 멀리 하였다.

3. 군에 입대하는 학우를 위한 술자리에서 군대가는 남자 선배가 집에 가려는 여자 후배의 손을 붙들고 있다가 강제로 목에 키스를 함. 주변에서 말린 후 한 여자 선배가 여자후배에게 싫으면 '싫다'라고 단호히 의견을 밝히려고 얘기함. 이후 술자리에서 여자 선배가 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함.

4. 군에 입대하는 학우를 위한 환송식에서 매춘하러 가자는 분위기를 조장하며 가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자 선배가 막아 문제화 됨. 후배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논의.

5. 97년 총여학생에 1년전 사건을 들고 찾아온 여학생이 있었다. 동아리 선배가 술이 취해 한 여학생을 강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했으나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현 상황에서 대처할 길이 없었다.

6. 95년 00과에서 한 남학우가 과 여학우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먹었다'는 표현으로 사실 무근한 소문을 퍼뜨렸다. 여러명의 여학우들을 걸고 넘어진 후에야 그 여학우들의 귀에 들어가 이 사건이 문제시되었고, 과내에서 대책위가 꾸려져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7. 00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삼신교'를 만들어 교주, 교가 등을 정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강간을 조장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즐겼다. 현재는 없어졌으나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과내 문화로 자리잡았다.

8. 나체예다 낙서한 사건- 학생회관 3층 동아리방 앞에 여성의 나체를 벽화로 그려 놓았는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입술과 음부에 성폭언을 해 놓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고 현장 사진을 증거로 남기고 곧 동아리에서 지워버림.

9. 9월 2일 새벽 3시 공대 본관 6층 동아리 방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해 주기 위해 동아리 방에 가방을 놓으러 온 여학우를 남학생이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한 사건이 발생. 여학생이 동아리 방에서 뛰쳐나온 후 남학생은 여학생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수첩을 가져가 그 여학생의 연락처와 신원을 파악. 학생증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만나자고 연락. 학생증을 받으러 혼자 나오라느니 그 여학생을 도와주려고 함께 나온 친구들을 보고 나를 겁주려고 쫓아잡은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느니 하며 오히려 여학우를 더 협박.

10. 북악가요제의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온 한 여학생에게 마지 들어서 비밀이야기를 하듯이(마이크를 대고) '너는 오늘부터 집에서 매일 상반신 운동을 해서 **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와'라고 함. (사회자는

본교출신인 개그맨 정아무개임)

3. 새터

1. 공대 95년도 새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대는 선후배관계를 철저히 따지는 (군대식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층에선인가 복도에서 선배가 후배 기압넣는다고 다 벗긴채로 엎드려 뺨치기를 시켰는데요.. 글썽.. 이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 몇 안되는 여학우가 보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복도에서 그렇게 시켰었는데, 그 층만 올라가도 뺨히 보게되는 것이 아닙니까?

2. 새터에서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옷벗기 게임을 하여 그 자리에 남학생이 다수인 것을 이용해 있는 여학우들을 민망하게 만들. 그러나 다수의 권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3. '여자 셋 다 드릴게요'- 새내기들이 선배들이 준비한 새로배움터에 와서 어색하고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청평의 콘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는데 다른아닌 백상용원단의 율동공연이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데서 응원하는 치어 리더들이 하는 율동인데 정말 경쾌하고 신나고 힘차다. 문제는 그 율동에 있는 것이 물론 아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응원단장인지 하는 남학우가 새내기들에게 이런 연사를 했다. "여러분, 저희 연습 많이 했는데, 응원 잘해주셔야 해요. 응원 잘해주면 여기 뒤에 있는 여자 셋 다 드릴게요."라고 더욱이 주목할 것은, 새터가 이분해서 이루어졌는데 처음 1전의 공연에서는 '그래 실인일거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2전의 공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계획되어진 연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총여학생회가 머무는 숙소로 친구들이 찾아왔다. 응원단의 발언에 대해 기분나쁘다는 의사를 전해온 사람들이었다. 정식적인 신고 접수는 아니었지만 총여학생회는 이것이 명백히 공연자리에 있던 새내기들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단정하고 총여학생회 계간지 『동익여성』에 게재할 예정이다.

4. 기계공학과 남학우들이 옷을 벗어던지기! - 새터가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기계공학과 남학우들이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벗은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줄을 맞추어 뛰었다. 그들은 왜 추운 겨울에 무엇을 위하여 옷을 벗어던지고 줄을 맞춰 뛰어다녔을까. 물론 이 경우는 총여학생회에 제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한 자로서 명백히 성폭력이라고 규정지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상속에서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지나쳐버리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율해만의 일이 아니라 기계공학과 행사 때마다 심심치않게 벌어지는 행사라는 것이다.)

5. 97년 새터에서 A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서 성기모양을 만들고 여학생이 가운데 앉아 암바사를 뿜으면서 사정하는 것을 흉내냈으며, B단대에서는 실무단 여학생이 지나갈 때 줄을 서서 '옷벗어'라고 말했다.

6. 경영대 새터사건- 이후 97년 발생한 사건은 경영대 새터에서의 언어적 성폭력이다. 학생회가 준비한 행사와 학교측이 준비한 행사 두가지의 행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경영대의 특이한 새터인데, 이 중 학교측의 행사는 이벤트회사를 불러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섭외한 진행자의 언어적 성폭력, 여성의 몸을 희화화하고 대사화 시키는 발언이 행해졌고, 대다수의 남학우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이에 새내기 여학우들이 집단적으로 행사장을 나갔다. 진행자는 무성의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다시 사과를 하였다. 사건 이후 경영대 학생회와 여학생회 그리고 여위는 학교측에 공식사과와 이벤트 회사측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7. 모 단과대학 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 타 단대 여학생이나 여학생 실무단이 들어가면 '여자다, 벗어'를

연호했다. 이것은 그 단대 여자 세대기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다.

8. 단대별 행사 시간에 여성스러운 남자 세대기를 앞에 불러 20분 동안 “너 남자 맞아? 벗어봐”등 집단적인 언어폭력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만이 남성적인 것인가?

9. 조별 장기자랑 시간에 남자 세대기를 여장을 시키고 하나씩 벗게 함. 가슴을 크게 집어넣고, 바보 같은 웃음과 요염한 걸음걸이가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여자되기 놀이. 심지어는 남장을 한 여학우가 여장을 한 남학우를 수건으로 채찍질하는 행동을 묘사하기도 했다.

10. 95년 세대기 세터의 장기자랑 시간에 두 명의 남학우가 나와 한 명은 여장을 하고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며 당시 유행하던 음담패설인 ‘어머, 그걸 다 넣어요? / 그럼 남기남?’의 대사를 외침.

11. 장기자랑 시간에 **과 신입생들이 ‘독도는 우리땅’을 ‘미아리도 우리땅, 청량리도 우리땅...’으로 개사해서 부렸다. 조사해 본 결과 선배들이 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세대기 발언이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올라오자 ‘벗어라’를 외침

4. 공공시설

97년 5월 22일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 진술

당시 상황- 청년문화회(피해자 소속 동아리)에서 대동제 중 시화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녁 6시 30분경 시화전을 철수하고 야외 음악회를 보러 갔다가 선배들과 뒷풀이를 등나무 옆 잔디밭에서 하던 중 학생회관 1층 화장실로 감. 사람들이 많아 학생회관 3층 여자 화장실로 올라감.

3층 화장실에는 두어 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창 옆 안쪽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막 일어서서 옷을 입고 바지 지퍼를 올리려던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급해서 혹은 노크소리를 듣지 못해서 두드리려나 생각하고 다시 노크를 막 했을 때 과격하게 문이 열리면서 가해자인 남학생이 들어왔다. 어떤 상황인지 모른채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혹시 내가 남자화장실에 잘 못 들어왔나라는 당황함이 느껴져 “아니, 여기가 남자화장실이에요?”라고 두어 번 물었는데 가해자가 내 손목을 붙들고 벽쪽으로 몰아부치며 “아니요, 저 걱정이 되서 왔어요.”라고 몇 번 대답함.

그 때 마침 목격자가 들어와 벨트를 잠그고 밖으로 나왔고, “이 개자식아, 너 이름이 뭐야?”라고 물었고 가해자는 또 정말 걱정이 되서 왔다고 말을 하다가 추궁하자 세무학과 97학번 전창영이라고 대답했다. 그 때까지 최소한 걱정이 되서 왔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싶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나, 기억력 좋다. 나 너 기억해, 나중에 또 다시 만나자 알겠니? 나, 너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목격자와 가해자가 말하는 사이 동아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에 가해자가 그럼누리 쪽으로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감.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일단 동아리 뒷풀이 장소로 돌아왔고 조금 있다가 총학에서 한 선배가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총학으로 올라감. 총학에 가서 보니 가해자와 15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가해자가 거짓으로 이름을 뱃음을 그 때 확인하였음.

* 목격자 진술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봄. 화장실 옆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데 그럼누리 쪽에서 가해자가 오더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감. 이상하게 생각하여 따라 들어갔는데 가해자가 거칠게 노크를 몇 번하더니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을 위에서 확인을 하고 밀치고 들어감. 위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쪽으로 쫓아갔고 여학우 비명소리가 들림.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치고 한 손을 꼭 잡고 고정시킨 후 포옹을 하고 있었음. 일단 가해자를 피해자와 데리고 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느냐고 물으니까, 걱정이 되서 왔다고 대답함. 이름을 계속 추궁하자 세무학과 97학번 전창영이라고 대답함. 피해자

가 돌아가려 했고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생각에 추궁하기 위해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제 자봉단이 상황을 알고 물려 왔고 가해자가 그림누리 쪽으로 도망을 감. 자봉단이 쫓아가 잡음. 총학생회로 데리고 왔을 때 횡설수설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사람들이 학생증을 찾아 추궁하자 본명을 댔. 피해자를 불러와 대면을 시킴.

• 가해자 진술

과 학우들과 대동제 뒷풀이 중이었고 학생회관으로 왜 갔는지. 그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사이 사이에 기억이 나는 것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총학생회로 가서 여러사람들이 잘못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술이 많이 취해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한양대에서

1. H는 학생회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과선배이자 상부 단위학생회에 있던 선배가 들어와 산책을 하자고 하였다. H는 평소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이기도하여 같이 나갔으나, S는 "4년 동안 널 좋아했다"고 하면서를 직녀관 뒤쪽으로 끌고가놓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며 성폭력을 행하였다.

2. K는 같은 과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너무 피곤해서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가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왔고 동아리방에서 성적인 요구를 해왔다. K는 저항을 했지만 강간을 당했고 후에 이어진 선배의 '사귀자'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3. C과에서는 나이많은 학생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게 되는 등의 사유로 출석을 빠지게 되는 일이 두세번 있었다. 그 과의 수업을 맞고 있는 L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한 여학생이 출석하지 않자 빈정대며 "개도 임신했나"며 출석을 불렀다.

▶ ‘학내 성인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I. 들어가며

여성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학내 성인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서울, 경기지역 학단위 여성모임의 연대체인 ‘여성연대회의’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학내 성폭력과 성인식 실태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마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는 대형교 양강의와 돌림이를 통해 학내에 무작위적으로 총 55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200부가 수거되었습니다. 이중 여성용 설문지는 76부, 남성용 설문지는 124부였습니다.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II. 설문지분석

i. 설문지의 개괄적인 내용 소개

설문지는 총 4개의 꼭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각각의 꼭지는 첫째 성인식 조사, 둘째 성폭력 유형/사례조사, 셋째 학칙제정의 필요성, 넷째 성폭력 관련 학내 전담기구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인 성폭력 유형/사례조사에서는 여성에 대한 언어적인 유형, 남성에 대한 언어적인 유형,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인 유형 그리고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으로 성폭력을 세분화하였으며, 각 유형에 대학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들어놓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응답자가 구체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적시하고, 대학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설문지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따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는데, 두 설문지의 차이점은 설문지의 질문이 성폭력인지와 경험의 정도를 묻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또 묻기 때문에 남성용 설문지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간소화된 것입니다.

ii. 쟁점

- 대학은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여학생 중 14.5%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가 완전개별면담 형식이 아니어서 사실상의 비밀보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은 대학이 더 이상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피해가 모교지, 동아리방, 술자리 등에서 일어난 것을 고려할 때 대학의 일상에서 성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성적인 괴롭힘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결과를 비추어 보면 이제 한양대에서 여성권의 확보라는 문제제기가 전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iii. 설문지 분석

설문지 분석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1. 성인식 조사

① 설문지 문항과 응답

1= 절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다소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단위:%)

번호	질문내용	여 성				남 성			
		1	2	3	4	1	2	3	4
1-1	매력적인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인 호의를 예상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18.2	15.6	50.6	15.6	11.1	11.1	55.6	22.2
1-2	여성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여성'임을 어느 정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8.5	34.6	21.8	5.1	27.4	30.1	34.2	8.2
1-3	성적으로 공격받는 여성은 그들의 말, 행동, 옷입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	24.1	38.0	31.6	6.3	5.5	39.7	43.8	11
1-4	여성들이 성관계에 대해 '싫다'고 할 때는 분명히 거절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2.7	18.7	38.7	40.0	5.5	21.9	43.8	28.8
1-5	여성들은 성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사소한 일도 성적 괴롭힘이라고 오해한다.	21.3	44	28	6.7	5.6	50.7	36.6	7
1-6	사람들이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의 성적 농담일 경우가 많다.	24.7	53.2	20.8	1.3	5.6	52.8	34.7	6.9
1-7	여성들이 섹시한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는 것은, 자기만족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의도가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다.	26.7	44	26.7	2.7	0	28.2	56.3	15.5
1-8	악이 없는 성적 농담은 주변에 활력소가 된다.	28.9	39.5	30.3	1.3	9.6	24.7	52.1	13.7
1-9	성적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이유중 하나는 몇몇 여성들이 성적인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4.2	36.4	19.5	0	9.7	48.6	37.5	4.2
1-10	학교나 직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관심은 여성들의 좋은 학업/업무성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6.8	48.7	11.8	2.6	26.4	45.8	25	2.8
1-11	교수들이 수업 중 하는 언행이 성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31.1	44.6	16.2	8.1	13.9	36.1	40.3	9.7
1-12	여성 차별주의와 성적 괴롭힘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9.2	38	16.5	6.3	20.8	40.3	26.4	12.5
1-13	성적 괴롭힘과 권력은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52.6	35.5	7.9	3.9	38	38	16.9	7
1-14	나는 성적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6.6	11.8	42.1	39.5	1.4	25	52.8	20.8
1-15	나는 대학에서 성적 괴롭힘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5.1	32.1	41	21.8	8.2	50.7	30.1	11
1-16	일반적인 성적 괴롭힘은 잘못된 성적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11.7	15.6	45.5	27.3	1.4	20.8	59.7	18.1
1-17	대학에서는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67.1	27.6	5.3	0	43.8	38.4	12.3	5.5

② 설문지 결과 분석

: 간략한 성인식 조사를 위해 17가지의 명제를 던지고 응답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 중 1-3번 문항과 1-4, 1-7번 문항은 일반적으로 갖기쉬운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여성과 남성의 인식차이의 정도가 크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공격받는 여성이 그들의 말 행동 옷 입는 방식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1-3번의 응답을 보면 여성의 경우 62.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5.5%만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당하는 쪽인 여성보다 가해자일 수 있는 남성이 그릇된 고정관념에 젖어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15번은 '대학에서 성적인 괴롭힘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남성응답자의 41.1%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여성응답자의 62.8%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게 대학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빈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여성이 좀더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2번부터 16번까지의 결과에서 다소 성차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성적 괴롭힘을 여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의 문제로 성적인 괴롭힘을 사고하고, 성적 편견이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1-17번의 '대학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남성 82.2%, 여성 94.7%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내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제대로 된 성담론을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성폭력 유형/ 사례 조사

① 여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중 여성 자체에 대한 발언

α. 설문지 문항과 응답

- [1] 수업시간 등 공적인 자리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발언
 <예>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여자가 공부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 [2] 여성을 개인의 실질적 능력이 아닌 성별로 능력을 평가하는 발언
 <예> "여자가 왜 과대표를 하느냐", "여자가 많으니까 일이 안된다", "여자는 원래 그것밖에 못한다" 등의 발언
- [3] 여성 신체특성에 대해 편견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
 <예> 여성의 생리휴가 사용을 조롱하는 말, 달리기 할 때 여자는 가슴이 덜렁거려 불편하겠다는 등의 말, 여성은 출산 등 때문에 고용하면 인력 낭비다,라는 말 등
- [4] 술자리 등 모임에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여자에게 젓바에 안들어가냐?", "여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제까지 남아있냐" 는 등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는 발언
- [5] 술자리 등 모임에서 일찍 가려면 "여자는 이래서 분위기 켜다니까"라는 등 '남성만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

번호	여성						남성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46.1%	28.9%	21.1%	3.9%	0%	0%	18.3%	23.9%	28.2%	16.9%	7%	5.6%
2	64.5%	25%	7.9%	1.3%	1.3%	0%	29.6%	28.2%	36.6%	2.8%	1.4%	1.4%
3	81.3%	16%	2.7%	0%	0%	0%	47.1%	32.9%	14.3%	2.9%	2.9%	0%
4	46.1%	35.5%	17.1%	1.3%	0%	0%	17.1%	22.9%	34.3%	20%	2.9%	2.9%
5	59.2%	28.9%	10.5%	0%	1.3%	0%	14.3%	28.6%	30%	20%	5.7%	1.4%

β. 설문지 응답 분석

1) 성폭력 인식

; 사례 1과 같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발언에 대해 여성응답자의 96.1%가 약간 그렇다 이상의 정도로 성폭력이라고 느끼는데 반해 남성응답자의 경우 39.5%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4의 늦게 까지 모임(술자리 등)에 남아있을 때 '여자가 집에 안들어가나'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성의 98.7%가 성폭력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 25.4%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인식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2) 성폭력의 경험과 대처

; 여성응답자들은 1의 경우 75%, 2의 경우 44.5%, 3의 경우 37.3%, 4의 경우 56.8%, 5의 경우 50%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러한 발언을 한 대다수는 친한 선배나 동기, 친하지 않지만 선배나 동기였으나 1의 경우 교수에게서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퍼센트가 24.5%차지하여서 특징적이었습니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23.2%였고 발언 당사자에게 잘못을 분명히 지적한다는 36.6%였습니다. 그 날 넘어간다고 대답한 여성응답자의 대다수인 44.8%는 불쾌하기만하고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런 경우를 목격한다면 56.3%가 그냥 넘어간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66.4%가 오해를 일으켜 반감을 살 것이기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한 발언이 사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6.6%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